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수립

도교육청, 교육기관 발주 건설공사 현장에 재해 예방 위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안내... 시설담당 협의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기관 발주 건설공사 현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도 교육기관 발주 건설공사 현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추진계획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현장 적용과 실질적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발주공사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과 업무 추진계획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상·하반기 기술직 공무원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건설공사 현장 합동점검 실시 △건설공사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책자 제작·배부 △도급사업 및 공사발주 시 위험성평가 표준안 정비 △발주공사 의무이행사항 점검에 대한 사항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오후 4시 청조나래(별관)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과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시설담당(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기술직공무원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현장 합동점검 계획 등 세부 업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6월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7월·10월 건설공사 현장 합동점검, 11월 발주공사 의무이행사항 점검, 12월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오후 4시 청조나래(별관)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과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시설담당(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하반기 기술직공무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중대재해 예방 전담 조직과 기술직 공무원의 협업을 통한 상호보완 업무 추진으로 안

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철저한 업무 추진으로 교내 건설공사 현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 중등수석교사회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전주와 군산 일원에서 전북·경북 수석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경북 수석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경북 중등 수석교사들, 미래교육 발전방안 모색

전주·군산 일원서 워크숍

전북 중등수석교사회(회장 손영란)는 지난 19~20일 이틀간 전주와 군산 일원에서 '전북·경북 수석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수석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전북과 경북의 수석교사들이 활발한 소통을 통해 미래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북 중등수석교사 28명과 경북 수석교사 22인 등 약 50명이 함께 했다. 워크숍은 미래 교육 방향, 학생중심 체험수업 사례 공유, 수석교사가 수업 전문가로서 나아갈 방향으로 구성, 공교육 발전과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

손영란 전북 수석교사회장은 "경북의 수석교사들을 초청해 미래교육과 학생중심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면서 "다양한 정보를 공

유하고, 토론하면서 수석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식에 참석한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과 경북의 중등수석교사회가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교육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공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더욱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 유일 16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선정

전주대, 7억5700만원 지원받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는 지난 2008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16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되

는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연차 평가를 통해 2022년 사업 운영 결과와 2024~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험생 부담 완화', '고교교육 연계성 강화' 등 5개 평가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점검, 그 결과 전주대는 올해 사업비로 전북 최고 금액인 약 7억 5,700만원을 지원받는다.

주정아 입학처장은 "앞으로도 입학전형에서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고교교육과정을 반영해 대입전형을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화합융합시험연구원

국가전략기술 산업육성 '맞손'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김현철 이하 KTR)이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이명기 기획처장, 이승미 학생취업처장, 이흥기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소장, KTR에서는 김현철 원장과 정창석 글로벌협력실장, 유석 미래전략실장, 김태진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우석대는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를 중심으로 KTR과 △수소에너지 재활용 시험센터 유지 및 운영 협력 △시설 및 장비 지원 △기술개발 및 연구과제 공동 수행 △교육훈련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난 19일 우석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산업육성 협약식.

등을 비롯해 수소연료전지 분야 특성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우수 수석교와 국가 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맞춰 수소연료전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과 관련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남천현 총장은 "우수 수석교와 국가 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안착하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KTR을 비롯한 전라북

도·완주군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특화산업 수요에 기반을 둔 산·학·연·관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석대학교·전라북도·완주군과 힘을 모아 지역 내 수소연료전지 등 국가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채식식단으로 건강 지켜요”

도교육청, 채식조리 아카데미 운영 자연음식문화원서 이론·실습 병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육류 위주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채식식단 레시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19일부터 6차례에 걸쳐 '2023년 환경·건강·배려의 식생활교육 연수(채식조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각급학교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실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1회기당 24명씩 총 144명이 참여한다.

특히 저탄소 채식의 날 운영학교 영양교사 및 영양사, 3식학교 영양실무사, 저탄소 탄소급식 중점학교 영양교사, 푸드스캐너 시범운영학교, 채식식단 자료집 개발 TF팀, 채식 레시피 개발 관련 교사연수회 회원 등을 우선 참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수는 전주시 소재 자연음식문화원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채식급식을 위한 전통식재료(장류)의 이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주제로 이론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전통장류를 이용한 채식요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채식요리, 학교급식에 활용가능한 채식요리 등 47가지 채식요리 실습 교육이 이뤄진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저탄소 환경급식 운영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 개발교육으로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채식식단 레시피 개발, 가정과의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학생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저탄소 채식식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 대야초,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과 함께 배움여행

군산 대야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지원을 받아 2박 3일 일정으로 배움여행(수학여행)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길여 회장은 모교인 대야초등학교 후배들을 가천박물관에 초대했다. 이 행사는 올해로 24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가천대, 롯데월드타워 등을 견학했으며, 18일에는 인천국제공항, 가천길병원과 이길여야담노연구원, 뇌과학연구원, 가천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이길여 회장과의 저녁 만찬을 즐겼다.

마지막 날은 에버랜드에서 시간을 보낸 뒤 군산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배움여행을 마무리했다.

이길여 회장은 이번 배움여행의 교통·숙박·식사와 각종 입장료 등의 경비를 모두 후원했다. 18일 만찬회 자리에서 대야초등학교 교직원과 6학년 학부모까지 초청해 의미를 더했다.

/정은성 기자



22일 '군산 청소년 원탁토의'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과 청소년자치회 모교대표 강민실은 오는 22일 군산 AVON 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군산 청소년100인 원탁토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 첫걸음을 땀 군산청소년 100인 원탁토의'는 군산 지역 청소년들이 교육, 복지, 환경을 비롯해 교원과 학생인권 등 지역사회를 비롯한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직접 선정해 한 자리에 모여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군산 청소년 100인 원탁토의'는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며 청소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정책으로 제안하는 민주적 소통의 장이자 청소년 공론장으로서 의미가 있다.

2023년 제8회 군산 청소년 100인 원탁토의의 주제는 '군산청소년, 전북교육비전을 논하다'이다. '나 학교 왜 다니지? 청소년이 말하는 더불어 미래를 여는 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전 신청한 150여 명의 청소년이 13개의 원탁에서 교육과 학교에 대해 자신의 솔직한 느낌과 생각을 나누고, 청소년이 바라는 미래교육의 모습과 방향을 그려며 교육비전으로 제안한다.

한편 군산 청소년100인 원탁토의 개최 이후 청소년들은 제안서를 작성해 교육장 및 교육감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19일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으로부터 기계설계공학부 교육연구용 차량 2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대학 자동차 연구·우수인재 양성 보태고파”

현대차 전주공장, 전북대에 교육연구용 차량 2대 기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9일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으로부터 기계설계공학부 교육연구용 차량 2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19일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임민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이정태 전주하이테크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역대학의 자동차 연구 기술 성장과 우수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기계설계공

학부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차량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 차량은 최근 출시된 현대 자동차 스타리아와 코너HD다.

임민규 전주공장장은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학의 연구와 인재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다른 기업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 18일 전주대학교에도 교육용 실습 전기차를 기증했다. <관련기사 15면>

/정은성 기자

전북대, 부산외대와 동남아 언어캠프 마련

내달 26일부터... 전 강좌 무료

26일까지 온라인 통해 신청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부산외국어대학교(총장 장순홍)가 공동으로 동남아 언어캠프를 마련, 이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2주간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이번 동남아 언어캠프에는 베트남어와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등 5개 언어를 교육하는 대면강의가 개설되고, 필리핀어와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교육은 비대면 강의로 이뤄진다.

2주 동안 하루 5시간씩 총 45시간의 언어 강의와 함께 동남아 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특강도 제공된

다. 비대면 강의로 개설되는 3개 언어의 경우, 하루 2시간씩 총 20시간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전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부산외국어대학교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언어캠프에 참가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온라인(구글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페이스북 계정(<http://facebook.com/ISEAS.JBNU>)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남아 언어캠프는 2019년 여름캠프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일곱 차례 대면으로 개최했으며, 총 429명의 수강생이 캠프에 참여해 특수 외국어 교육을 받았다. /정은성 기자